

급격한 환율변동 속에서 중소기업들의 현명한 환리스크 관리방법은?

- ☐ 일 시 : 2014. 3. 25(화) 14:00~17:30
- ☐ 장 소 : 여의도 KT빌딩 20층(바이킹 무궁화홀)

프로그램

중소기업 해외진출 공동설명회 개요

〈Session 1〉		
14:15~14:50	중소기업 해외진출 전략과 실전사례	김진홍 자문위원 ✓ 전경련경영자문단
14:50~15:25	2014년 외환시장 전망과 주요 위험요인	배민근 책임연구원 ✓ LG경제연구원
15:25~16:00	중소기업의 환위험 관리방안과 지원제도	오주현 팀장 ✓ 한국무역보험공사
〈Session 2〉		
16:00~17:20	수출상담회(既신청기업 대상)	경영자문단 자문위원
17:20~17:30	폐회	

❖ 목 차 ❖

Session1	■ 중소기업 해외진출 전략과 실전사례	1
	- 김진홍 전경련경영자문단 자문위원	
	2014년 외환시장 전망과 주요 위험요인	11
	- 배민근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중소기업의 환위험 관리방안과 지원제도	29
	- 오주현 한국무역보험공사 팀장	
	별 첨 1. 외국환거래 규정	43
	별 첨 2. 해외진출지원단 자문위원 약력(43人)	47
Session2	■ 수출상담회(既신청기업 대상)	51
	- 경영자문단 자문위원	

[Session 1]

중소기업 해외진출 전략과 실전사례



김 진 홍 자문위원
전경련경영자문단

해외사업 진출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은?

[세계는 넓고 할일은 많다!!]



FKILSC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Center for Large and Small Business Cooperation

세계로! 미래로!



목 차 Contents

- 1 해외진출 형태별 차이 비교
- 2 해외진출 형태별 장단점
- 3 한국 연도별 수출액
- 4 수출관련 상담기관 소개

FKILSC 전경관중소기업협력센터
Center for Large and Small Business Cooperation

■ 해외진출 형태별 차이 비교

FKILSC
전경관중소기업협력센터

- ✓ (개념) 현지주재 현지인(또는 교포)와 계약
- ✓ (장점) 설립 간편, 운영경비 저렴, 법적 실체 없음
- ✓ (단점) 영업활동 및 경비 송금 제약, 적격인재 찾기 어려움



영업대표



현지법인

- ✓ (개념) 법인설립 신고 등을 하여 외국에 소재한 법인
- ✓ (장점) 적극적 마케팅, 현지투자 인센티브, 취업비자 등
- ✓ (단점) 법인설립 및 폐쇄, 사후관리 복잡



- ✓ (개념) 외국에서 영업활동(x), 비영업적 기능(o)
- ✓ (장점) 설립/폐쇄가 상대적으로 간편함
- ✓ (단점) 영업활동 제약, 취업비자 쿼터 한정

해외지사
(해외사무소)



해외지사
(지점)



- ✓ (개념)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외국에서 영업활동 영위
- ✓ (장점) 영업활동 가능
- ✓ (단점) 본사와 법적 동일체로 지점 채무를 부담

■ 해외진출 형태별 장단점(1)

- ✓ (개념) 국내외 전문무역업체, 국내거주 바이어 통해 수출
- ✓ (장점) 전문업체 경험과 지식 활용, 인력/자본 부담 경감
- ✓ (단점) 경험축적기회 상실, 해외시장 정보 습득기회 제한
- ✓ (비고) 고유상표 수출, OEM수출



간접수출

- ✓ (개념) 직접 해외거래선에게 수출
- ✓ (장점) 국제경험 축적, 유리한 계약 조건 가능, 통제력 강화
- ✓ (단점) 자금/인력 부담, 적극적 마케팅 필요
- ✓ (비고) 해외대리점 선정 기준



직접수출

국제계약 [라이선싱]



- ✓ (개념) 지재권 사용을 허락하도록 로열티를 받고 허가
- ✓ (장점) 저비용 해외진출, 무역장벽 우회, 정치적 위험 회피
- ✓ (단점) 현지생산 및 마케팅 통제력 낮음, 경쟁기업 육성
- ✓ (비고) 저리스크, 경사로알티/기술지원료 등이 수익원

국제계약 [프랜차이징]



- ✓ (개념) 프랜차이저 - 표준화된 상품, 시스템, 용역 제공
프랜차이지 - 현지시장 지식 및 자본 제공
- ✓ (장점) 적은 비용 해외진출, 라이선싱 보다 통제력 높음
- ✓ (단점) 제한적 이익, 품질통제 어려움, 전략적 조정 난해
- ✓ (비고) 상표 제조 및 마케팅상의 노하우만 거래

■ 해외진출 형태별 장단점(2)

국제계약 [경영관리 계약]

- (개념) 기업을 대신 경영해 경영에 필요한 노하우 및 시스템 이전을 약정
- (장점) 위험회피, 전문경영지식이나 경험 활용 가능
- (단점) 경영의사결정 참여 어려움, 수수료에 이익국한, 경쟁기업 육성 등
- (비고) 서비스산업, 부동산관리, 전산업무관리 등

국제계약 [턴키프로젝트]

- (개념) 완공 후, 초기운영까지 실행한 후 발주자에게 일괄 제공하는 방식
- (장점) 해외투자 철수시의 대안, 공정기술 활용에 따른 수익 확보
- (단점) 경쟁기업 양성, 장기적인 시장확보 불가능
- (비고) 계약기간 장기/거액

국제계약 [계약생산]

- (개념) 주문회사의 요청에 맞는 품질의 제품을 생산/공급
- (장점) 투자불필요, 관세장비 회피, 낮은 생산비
- (단점) 품질관리상의 어려움, 공급 제한
- (비고) 주문사 상표 방식

■ 해외진출 형태별 장단점(3)

- ✓ (장점) 기술보호, 법세계적 전략적 조정, 신속한 의사결정
- ✓ (단점) 고비용/고위험 장기간 소요, 상당한 국제경험 필요



단독투자

- ✓ (장점) 초기 진출 비용 낮음, 현지 파트너 활용, 위험분산
- ✓ (단점) 신속한 의사결정 및 파트너 발굴 어려움, 통제성 상실



합작투자



신규(건설)

- ✓ (장점) 맞춤형 시설 확보 가능, 현지국 정부 우호적 대우
- ✓ (단점) 장기간 소요, 관련된 수 많은 업체와 협상

M&A



- ✓ (장점) 신속한 진입 가능, 인수대상 기업 자원 보존 가능
- ✓ (단점) 인수대상 기업 선정 어려움(문제점도 인수)

■ 나의 옛이야기 (사우디 국왕과 이집트 대통령과 함께)



- 1) 한국의 연도 별 수출액 (USD 기준) (자료 : 무역협회)
 - 1977년 : 100억불
 - 1990년 : 650억불
 - 2000년 : 1723억불
 - 2010년 : 4664억불
 - 2012년 : 5479억불
 - 2013년 : 5596억불 (559조6천억원)
- 2) 2013년 품목별 수출 현황(USD 기준)
 - 1차 상품 : 121억불
 - 경공업제품 : 368억불
 - 중화학공업 : 5107억불 (IT 제품 : 1307억불, 기타 : 3800억불)
 - 총액 : 5596억불
- 3) 2013년 해외건설 수주액 : 449개사가 104개국에서 679건, 652억불 수주
 - 지역별(억불): 중동 369(57%), 아시아 194(30%), 중남미 62(10%) 등
 - 공종별(억불): 플랜트 396(61%), 건축 143(22%), 토목 86(13%) 등
 - 국가별(억불): 사우디 162(25%), 이라크 96(15%), 카자흐 42(6%) 등

■ 참조자료 - 1

1. 진출 예정 국가별 무역, 투자, 비즈니스 관련 정보

- KOTRA 글로벌 윈도우(www.globalwindow.org)

2. 한국 외환 환거래 관련건

- 해외지사(연락사무소, 지점, 현지법인 등) 설립 및 사후 관리 등 에 관한 자료는 한국은행 (<http://law.bok.or.kr/>) 외국환거래 규정 (기획 재정부 고시 2012.12.05) 참조.

3. 투자/무역관련 웹사이트

- 한국 수출입 은행 : <http://www.koreaexim.go.kr>
- KOTRA (www.kotra.or.kr)
- 한국무역 협회(www.kita.net)
- 알리바바 (<http://korean.alibaba.com/> 한국어 version / www.alibaba.com)
- 글로벌 소스(www.globalsources.com)
- 구글(www.google.com)
- 무역보험공사 (<http://www.ksure.or.kr>)

4. 해외진출 관련 상담 기관

- 1) 전경련 중소기업 협력센터 : <http://fkilsc.or.kr>
- 2) 중소기업 진흥공단 : <http://www.sbc.or.kr>
- 3) 중소기업청 : <http://www.smba.go.kr>
- 4) 한국 해외 건설협회 : <http://eng.icak.or.kr>
- 5) 한국 플랜트 산업협회 : <http://www.kopia.or.kr>
- 6) 외교부 : www.mofa.go.kr
- 7) 한국주재 해당국 외국대사관 경제담당 공사
- 8) 해외 각국주재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및 경제담당공사

■ 해외 진출 좌우명

1. 전 세계 국가 수 : 249개국 (한국은 1/249)
2. 해외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장기적 사업)란 전략 필요
3. 해외 담당 인력확보에 과감한 투자 의식 필요
4. 단기간 투자보다는 장기간 투자 의식이 필요
5. 초기엔 비즈니스상 Risk Management(위험 관리)를 최대한 고려
6. 상호간 신뢰 구축이 우선(인터넷, 전화, 상호 방문 등)
7. 한국인 브로카 보다는 해당국 인사를 직접 접촉
8. 해당국 관련회사 및 인사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홍 경영자문위원

010-2480-0931 / supooro@hotmail.com

FKILSC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Center for Large and Small Business Cooperation

2014년 외환시장 전망과 주요 위험요인

배민근 책임연구원
LG경제연구원

2014년 경제 및 외환시장 전망과 리스크

2014. 3.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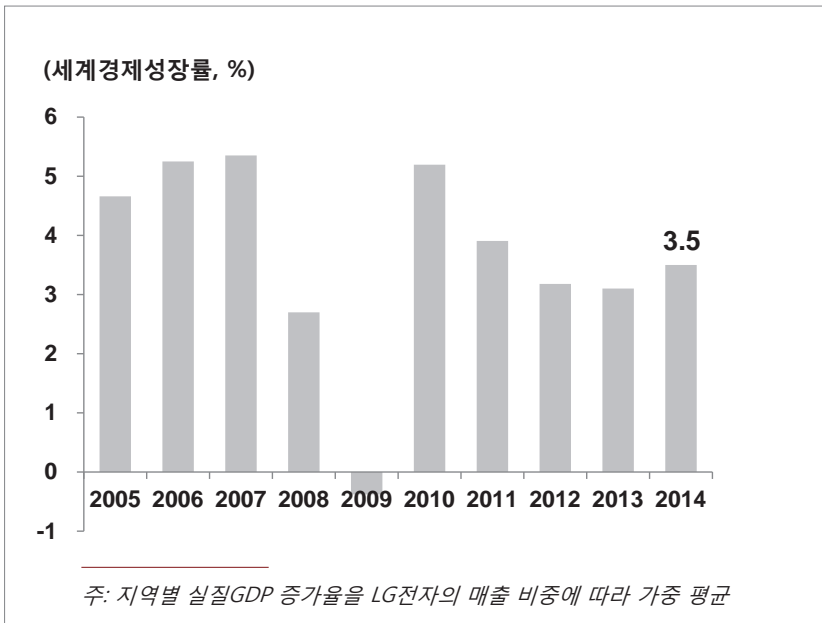
목차

I. 국내외 경제 및 외환시장 전망

II. 주요 위험 요인

지지부진한 회복... 체감 성장률은 더 낮아

2014년 성장률 전년보다 소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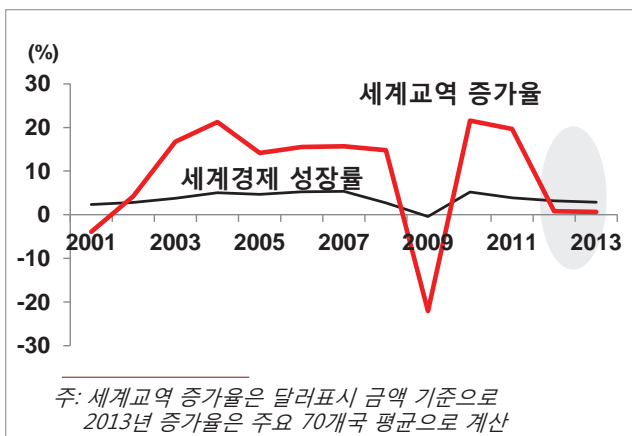
- 세계경기는 2013년 상반기를 저점으로 하반기부터 회복국면 진입
- 그러나 성장잠재력은 2000년대 중반에 비해 한 단계 낮아짐.
- 올해 성장률은 3.5%로 작년(3.1%)보다 높아질 전망이나, 우리경제의 수출비중을 감안한 체감성장률은 그보다 낮을 듯

1/28

2014년 특징

선진국이 회복 주도, 교역 부진 여파로 신흥국 성장 제약

세계교역 크게 둔화



- 작년 세계교역 증가율(1~3분기) 1% 하회... 위기 이전에는 교역 증가율이 성장률의 2배
- 글로벌 리밸런싱(무역불균형 조정)이 진행되면서 교역회복 제약
- 개도국 고성장 기대 약화와 미 출구전략으로 선진국의 對개도국 투자 둔화될 전망

엇갈리는 성장 전망

	'14년 전망 (%)	'08~'13년 평균 대비 증감 (%p)
미국	2.6	+1.6
유로존	0.7	+1.0
일본	1.4	+1.3

-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성장 재개
- 위기 이후 부채축소 등 구조조정 성과

	'14년 전망 (%)	'08~'13년 평균 대비 증감 (%p)
중국	7.4	-1.6
인도	4.9	-1.3
브라질	2.6	-0.5

- 신흥국은 위기 중 평균 수준에도 못 미쳐
- 원자재 수출, 국내투자 부진
- 과잉 유동성, 고물가 등 과거 고성장 후유증

2/28

소비, 건설투자 확대되면서 성장활력 높아질 전망

경기상승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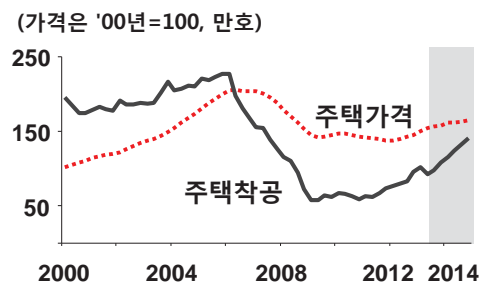
- 1 가계부채 조정 일단락
 - 소비여력 확보
- 2 주택가격 상승세 지속
 - 건설투자 및 관련 내구재 수요 증가 예상
- 3 셰일 가스 효과
 - 가스개발 및 화학 부문 고용 증대
 - 물가 안정, 경상수지 개선

- ☞ 출구전략에 따른 금리상승이 성장 제약
- ☞ 민간부문의 활력 높아지면서 경제성장률은 작년 1.7%에서 2014년 2.6%로 높아질 전망

가계부채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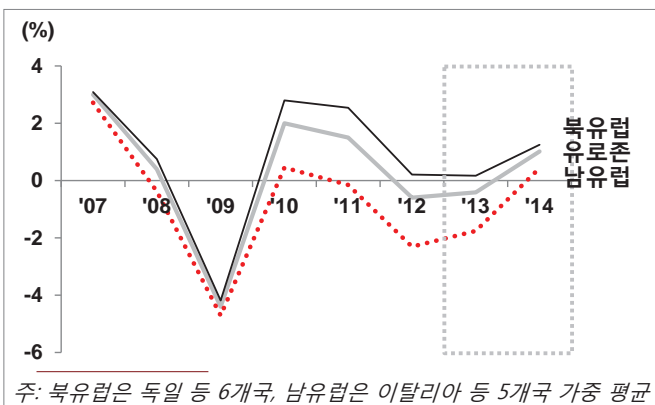
주택경기 개선 지속



3/28

마이너스 성장 벗어났지만, 불안요소 남아

유로존 플러스 성장 전망



-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은 '12~'13년 저성장 탈피, 올해 1% 내외 성장 예상
- 그리스, 스페인 등 위기국도 플러스 성장 전환
 -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 재정건전화 진척
 - 강한 긴축조건도 일부 완화

2014년 주요 흐름

경기 흐름

- 남유럽 위기국 실질임금 하락, 경상수지 흑자 전환 등 경쟁력 회복 조짐
- 실물경기 저점 지나 회복국면 진입

회복 속도

- 2014년 유로존 0.7% 성장 예상
- 은행부실 많지만, 유로존 차원의 정리절차 마련은 올해도 불투명... 금융기능 정상화 지연으로 성장에 발목
- 그리스 등 일부 국가 디플레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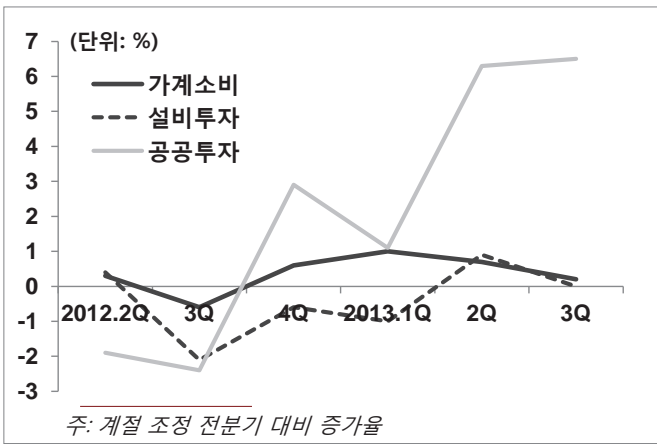
재정 위기

- 유로존 지속 여부 둘러싼 불안감 완화... 유럽안정화기구, 유럽중앙은행 역할 강화
-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에 따라 간헐적으로 국제시장 불안 재연

4/28

디플레 벗어났지만 성장 속도는 소폭 둔화

민간부문 활력 더디게 회복



- 아베노믹스 성과는 작년이 가장 커... 소비세 인상 부담 등으로 올해 성장률은 1%대 초반으로 둔화
- 현재는 정부부문이 회복 주도... 민간부문 활력 지체되는 모습
- 제조업 경쟁력 과거에 비해 크게 약화... 수출회복 지연, 경상수지 흑자 서서히 축소

아베노믹스의 향방

정책 기조 유지

- 아베 정부에 대한 지지 확고
- 통화·재정 확대 기조 유지하겠지만, 규제 완화, 신성장 정책이 단시일 내 큰 성과 내기 어려워

성장세 지속 한계

- 수요위축 악순환 멈추고 물가 올라, 디플레 탈출에 성공한 것으로 여겨짐.
- 구조개혁 한계, 생산가능인구 연 1% 감소 등의 제약으로 '2% 성장목표' 낙관 어려워

아베리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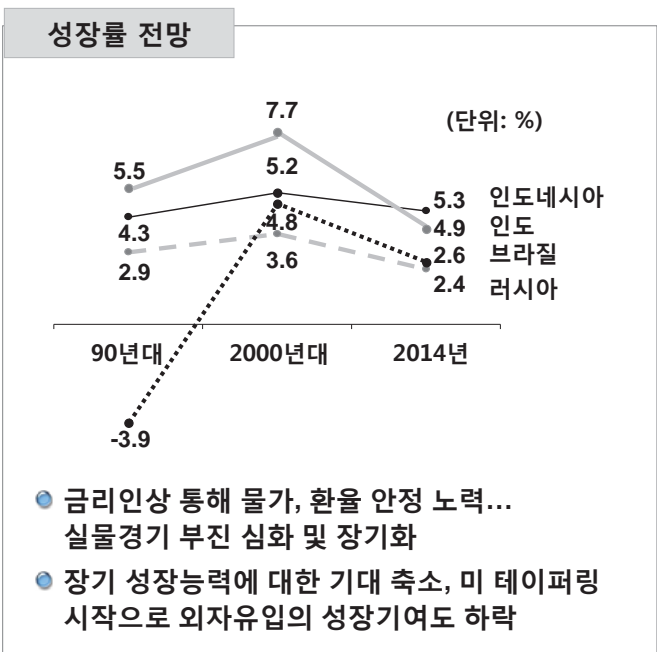
- 성장전략 실패, 무리한 경기부양책의 부작용으로 재정위기 우려
- 인플레이 심리 확산시 국채금리 급등 리스크

5/28

주요 신흥국

거대 개도국, 본격 회복 어려울 것

2000년대보다 2~3%p 성장세 저하



- 금리인상 통해 물가, 환율 안정 노력... 실물경기 부진 심화 및 장기화
- 장기 성장능력에 대한 기대 축소, 미 테이퍼링 시작으로 외자유입의 성장기여도 하락

주요국 전망

인도



- 정부신뢰 단시일 내 회복 어려워
- 제조업 기반 취약, 통화가치 하락해도 수출, 성장 회복 더뎠
- 외자 유출 이어지며, 올해도 4%대 성장

브라질



- 외자유출, 환율 및 물가불안으로 2%대 성장 머물 듯
- 월드컵 앞두고 시위 이어지고 10월 총선, 대선 겹치면서 정치불안 가속

러시아



- 저성장-고물가 스테그플레이션 상황
- 유가안정, 셰일가스 공급 확대 여파... 성장둔화, 경상수지 적자 전환 가능성
- 보유외환 충분하나, 외자유출 및 루블화 약세 지속

인도네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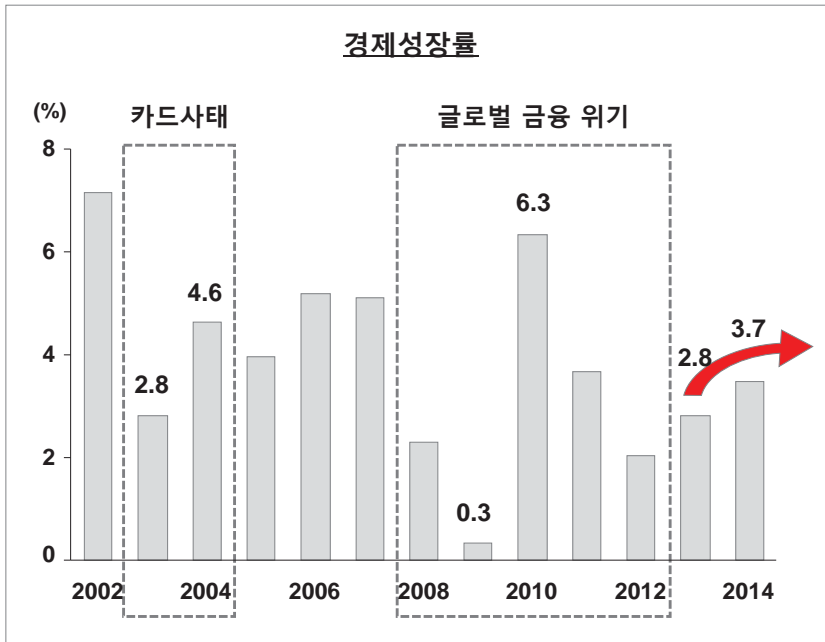
- 원자재 수출 부진 여파 지속
- 금리인상 및 경기둔화로 민간 부채 상환능력 위축... 은행 부실화 우려도

6/28

국내 경기 흐름

성장활력 개선되나 회복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

과거 회복기에 비해 반등속도 느릴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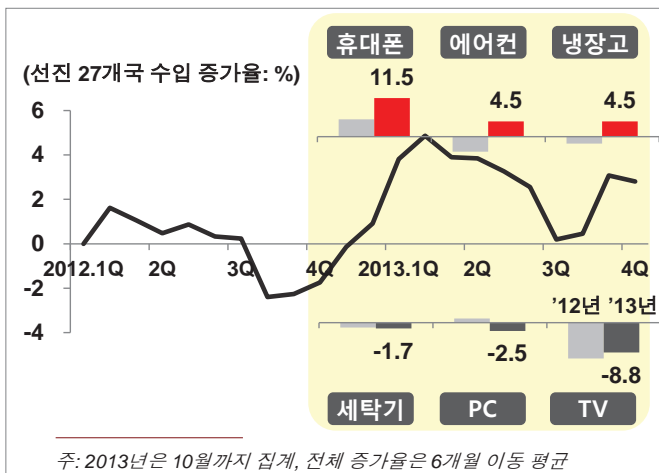
- 세계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국내경제 성장세도 높아질 전망
- 다만 과거 경기 회복기에 비해 성장률 반등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
- 중기 성장률은 3%대 중·후반 예상

7/28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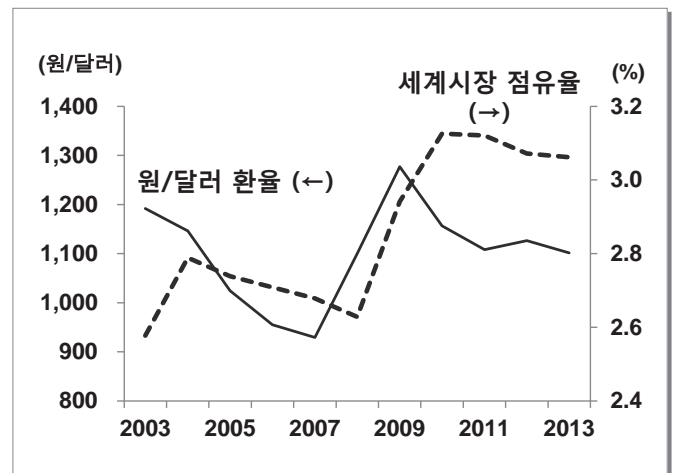
선진국 소비자 가전 수요 서서히 회복되나, 원화절상으로 수출 확대 제약

선진국 수요 회복, 품목별로는 엇갈려



- 선진시장 대기수요 재개... 전기·전자, 자동차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 견인
- 소비자 가전 영역 내에서도 품목별로는 수요회복 속도 차이... 휴대폰 더 늘고 TV는 부진

원화절상이 회복속도 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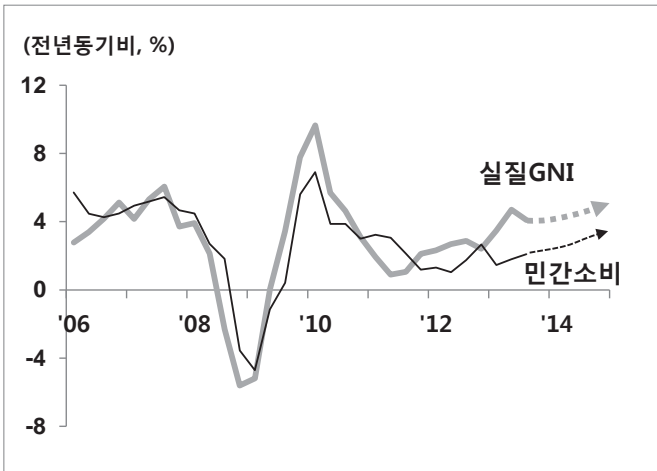


- 원화절상, 엔저 지속 등 환율 여건 악화되면서 수출의 가격 경쟁력 저하
 - 달러당 1,050원 내외에서도 여전히 장기 균형 수준에 비해 저평가
- 2014년 수출 증가율은 6% 내외 예상

8/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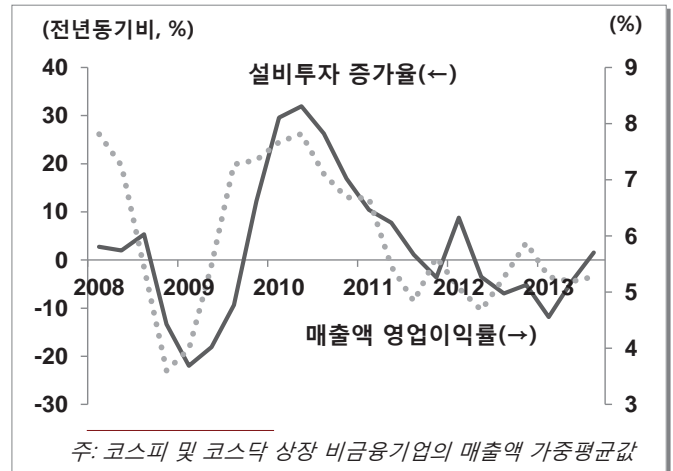
체감도 높지 않은 완만한 회복

실질국민소득 개선으로 소비 완만한 회복



- 가계구매력 높아지면서 소비 점진적으로 호전
 -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으로 실질소득 확대
- 높은 가계부채 부담, 고령층 소비성향 저하 등 구조적 제약요인들은 단기간 내 개선 어려워

투자는 대체로 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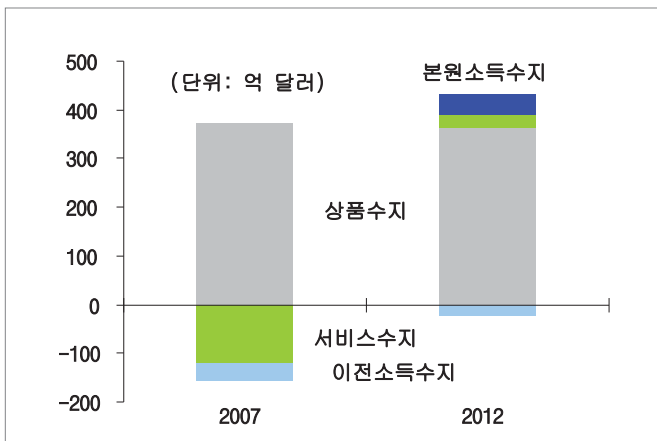
- 국내 설비투자 장기 부진에 따른 일시 반등 요인 있지만 대체로 부진할 전망
 - 기업 투자여력 전반적으로 충분치 않아
- 주택가격 하향 추세는 진정
 - 전세가 상승, 분양시장 호조 등 수급여건 타이트

9/28

외환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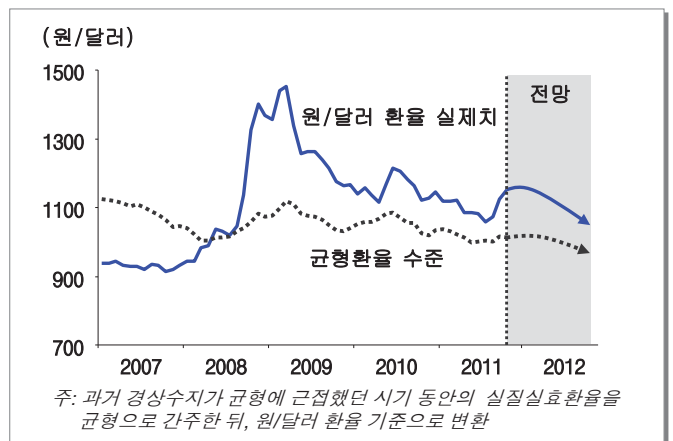
달러당 1,100원 내외 환율수준에서도 연 400억 달러 이상의 경상흑자 예상

경상수지 구조에 대한 평가



- 최근의 경상수지 흑자기조는 상품부문의 흑자와 더불어 서비스수지의 흑자반전이 가장 큰 역할
 - 주요 제조업 경쟁력 강화의 성과
 - 건설, 콘텐츠 등의 서비스 수출 확대
 - 원화강세 진전되면서 관광흑자는 줄어듦 전망
- 지난 해 400억 달러 이상의 흑자에 이어 올해도 연 200억 달러 내외 흑자 예상

균형 수준 대비 원화 저평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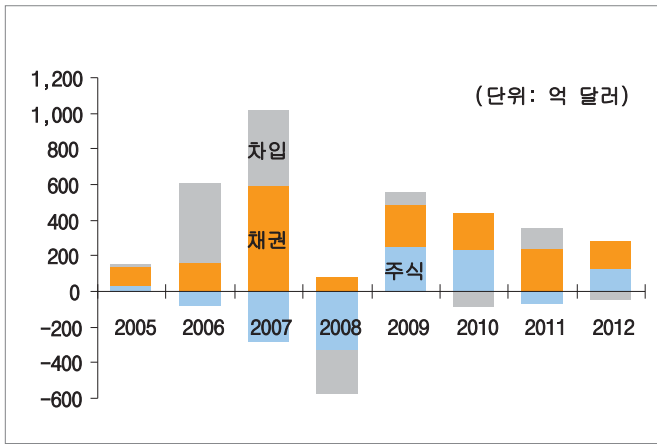
- 2000년대 중반 이후 균형환율(FEER) 점진적 하락
 - 세계경제 고성장 효과... 위기 이후에는 상당부분 축소될 전망
 - 그간 엔화 및 위안화 절상 영향... 중장기적으로 주요통화에 대한 강세전망이 줄어드는 경향
- 환율정책의 급변 배제를 전제로 향후 1, 2년간은 원화가치의 저 평가 상태 유지될 전망

11/28

외환 수급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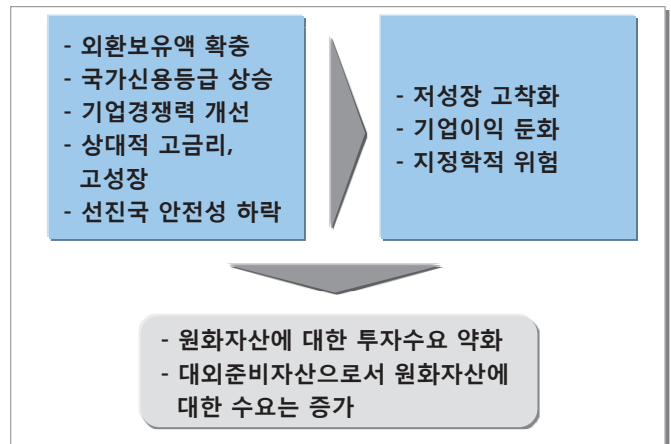
외국인투자자금 유입 지속되면서 환율하락 요인으로 작용

금융투자계정 추이



- 금융투자계정을 통해 순 유입되는 외화는 연 평균 300억 달러 정도이지만,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이보다 작음.
 - 부문별 차이... 채권 < 주식, 차입
 - 원화에 대한 위험통화 인식, 최근에는 완화

원화자산에 대한 선호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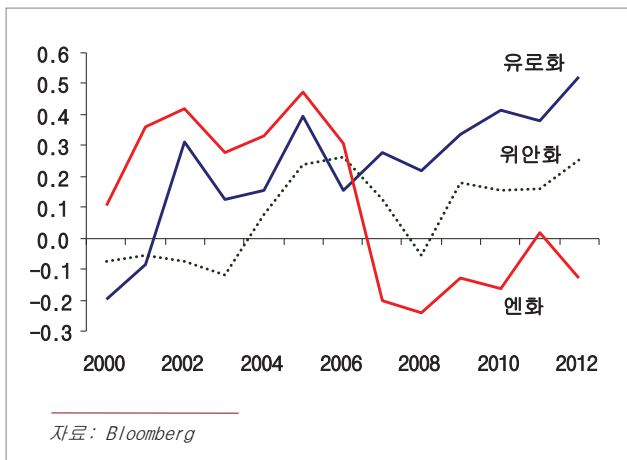
- 원화자산의 안전성 크게 증대된 것으로 평가
 - 작은 충격에는 원화환율이 과거에 비해 덜 반응
 - 외국 중앙은행들이 외환보유액 다변화 차원에서 원화자산을 편입하기 시작
- 반면 우리경제의 저성장 고착화, 기업이익 성장성 약화, 지정학적 위험 및 부담 등 투자매력도 약화 요인도 존재

12/28

환율 동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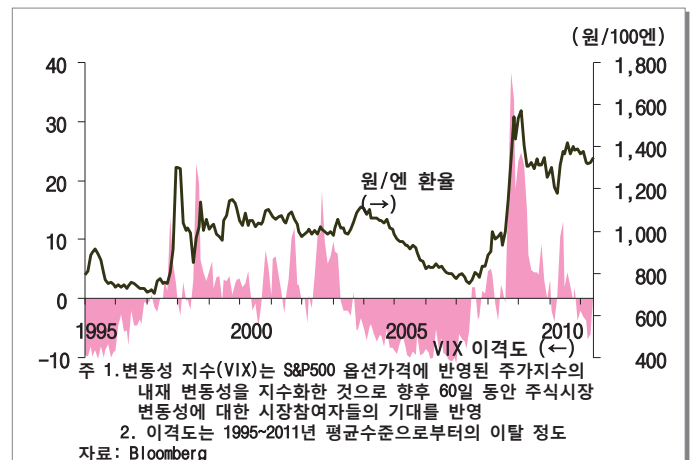
엔화화의 동조화 축소, 유로화 및 위안화와의 동조성 강화

주요 통화와 원화의 상관관계 추이



- 중장기적으로 엔화와의 동조성은 대체로 약화
- 위험선호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유로화와의 상관성 높아져
- 중국과의 실물경제 동조성 강화, 환율정책에 있어서의 미국의 영향력 등으로 위안화와의 동조성 크게 높아져

변동성 지수(VIX)와 원/엔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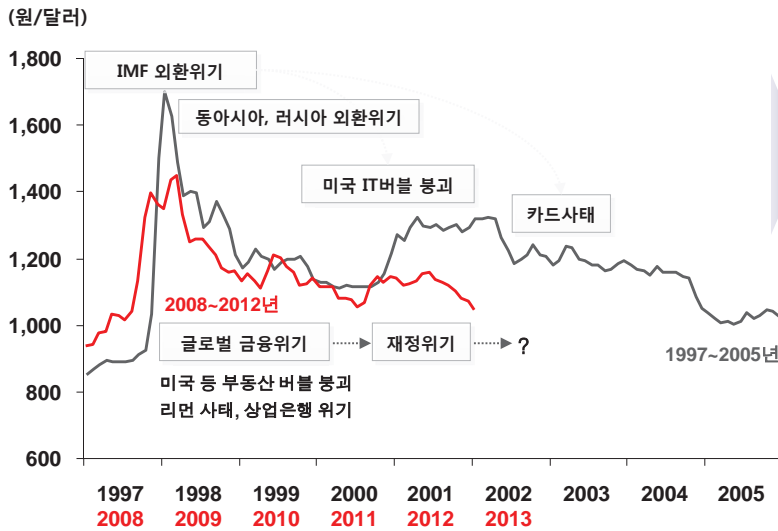
- 2000년대 중반 이후 원화와 엔화 간의 탈동조화 뚜렷
 - 과거 양국간 경기 및 산업구조 유사
 - 2000년대 들어 엔 캐리 트레이드 급증... 엔화 가치가 국제 금융시장의 대표적 위험 척도로 부각
 - 원화와 엔화는 평상시 또는 경기호조기에는 고수익 vs. 저수익 통화로, 위기 시에는 위험통화 vs. 안전통화로 뚜렷이 대별

13/28

원화환율 장기 추세

위기 시의 급등락 국면 이후의 점진적인 가치회복 과정

원화환율 장기 추이



상반된 정책대응

- 자유변동환율제 도입을 비롯한 일련의 '외환자유화' 조치
- 노동시장 유연화 등 'Global Standards'
- 선물환 한도, 외국인 국내채권투자 과세, 은행에 거시건전성 부담금
- 토빈세 도입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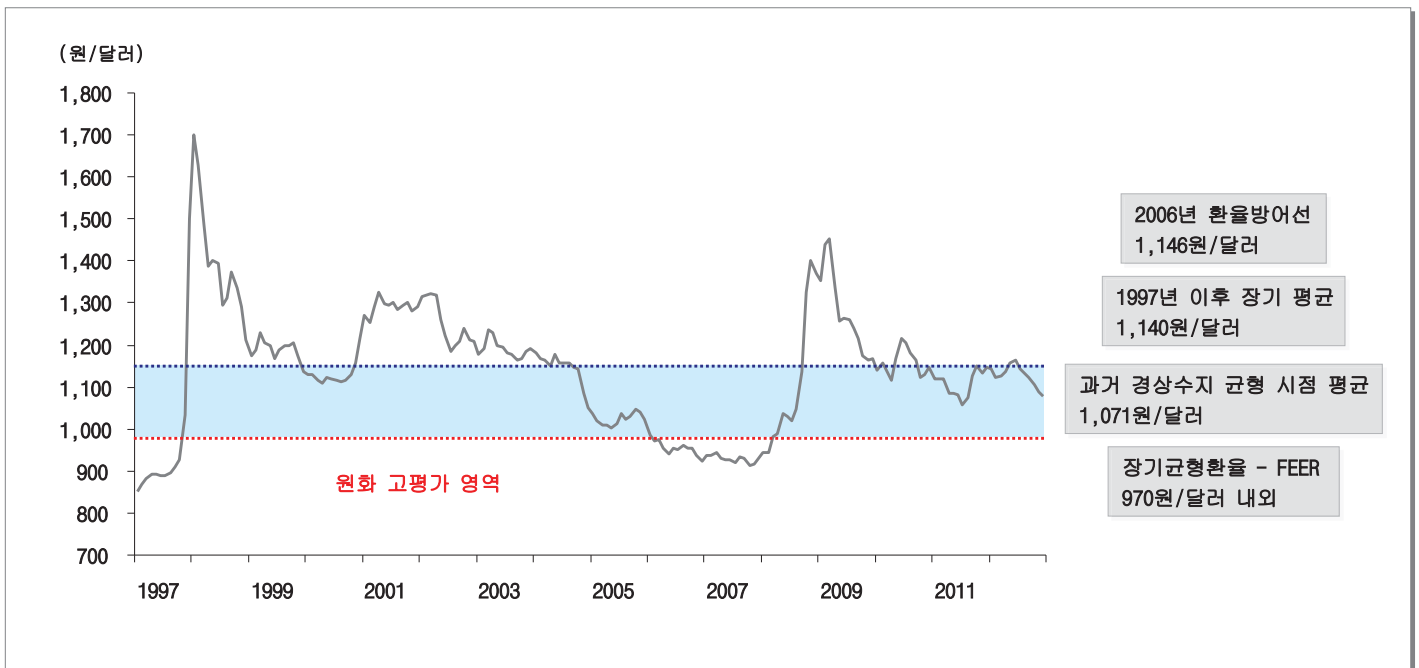
- 위기 해결과정이 또 다른 불안요인 생성
 - 경제주체들의 행위변화 → 대안투자처의 Boom-Burst
 - 정부정책에 따르는 부작용 → 정부재정 고갈, 무리한 경기부양책의 부작용
- 2013년 이후의 도래할 수 있는 위험의 모습은?

14/28

원화환율 장기 추세

장기 관점에서 중립적인 환율범위에 위치한 상황

중장기 균형 또는 적정 수준에 대한 다양한 준거들



15/28

대내외 균형 동시 달성하는 환율수준 대비 5~6% 저평가

기조적 수지 접근법(Fundamental Equilibrium Exchange Rate)에 의한 균형환율 수준 평가

※ 무역수지 균형 달성

수출

세계경기, 환율, 수출단가, ...

수입

국내경기, 환율, 수입단가, ...

※ 잠재성장수준 달성

“우리경제가 잠재성장수준에서 경상수지 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환율 수준”

현재 달러당 950~1,000원 정도의 수준으로 추산

위안화 절상 등의 영향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낮아지는 추세... ‘경상수지 구조적 흑자’

서비스 및 소득수지 고려 필요

세계경제 불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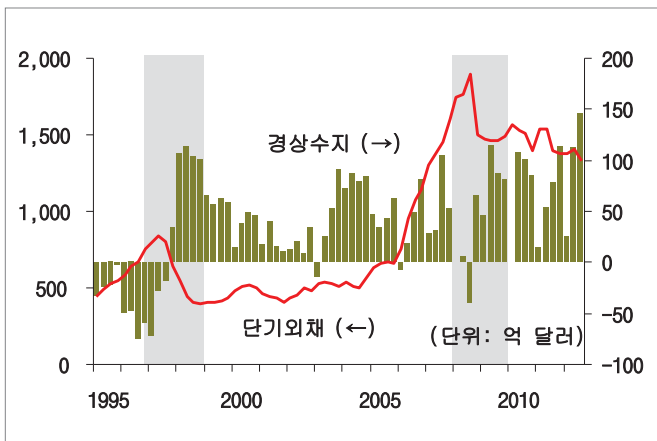
꼭 경상수지의 ‘균형’이 바람직한 정책목표인가?

16/28

외환정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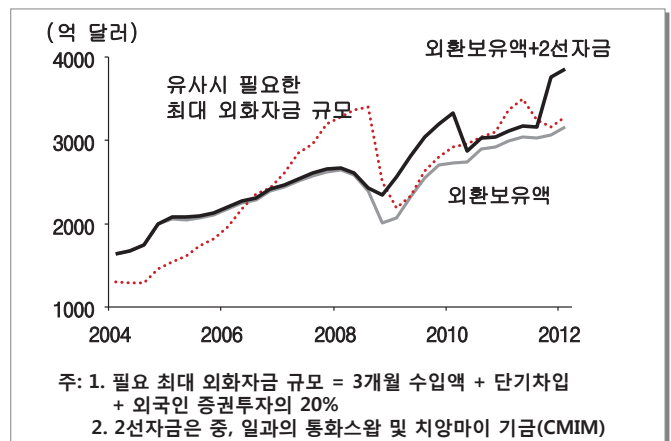
우리경제 안정성, 복원력 차원에서 GDP 대비 1~2%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바람직

환율 하락기 외채 증가는 위험



- 우리경제 및 외환시장의 위기는 경상수지 악화 및 단기외채 증가, 원화가치 高평가 심화와 함께 도래
 - IMF 이전... OECD 가입('93) 이후 국제 단기자금시장에 접근 가능
 - 리먼 사태 이전... 글로벌 저금리 및 조선사 선물환 매도 등으로 인해 단기외채 급증
- 원화의 급격한 절하 이후 경상수지 흑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본격적 회복 및 안정화 가능

외환보유액, 필요수준 상회



주: 1. 필요 최대 외화자금 규모 = 3개월 수입액 + 단기차입 + 외국인 증권투자의 20%
2. 2선자금은 중, 일과의 통화스왑 및 치앙마이 기금(CMIM)

- 엔저 촉발 이전부터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등 자국통화 강세 저지 위해 외환보유 확대 움직임
- 아베 내각의 적극적인 엔저 유도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자국통화 절상 저지 움직임 본격화될 전망
 - 수출경쟁력 유지
 - 외화유입으로 인한 물가상승압력 완화

17/28

I. 국내외 경제 및 외환시장 전망

II. 주요 위험 요인

주요 리스크

미 출구전략, 중국 성장 둔화 및 금융불안, 원고·엔저 압박이 위험 요인으로 대두

세 가지 위험 요인

1. 미 출구전략

- 글로벌 금리 상승 및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격 약세 요인... 소비와 투자의 활력 저하
- 양적 완화 기간 중 자본 유입 많았던 개도국들은 외국자본 유출되면서 성장 차질

2. 중국 성장둔화 및 금융불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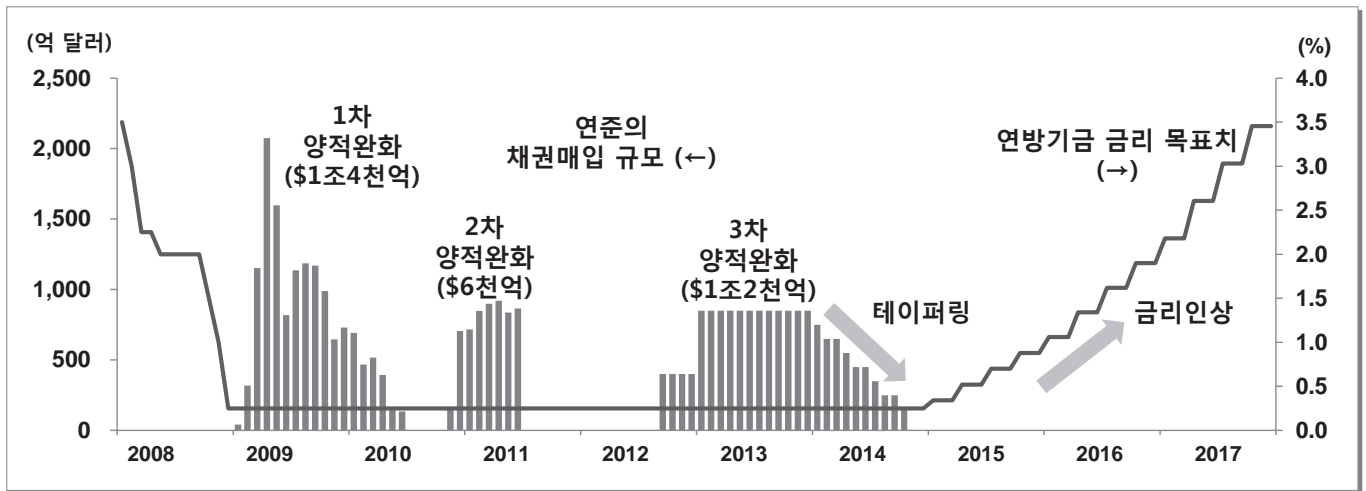
- 경기부양보다 개혁에 치중
- 그림자 금융 부실화를 비롯, 대출급증, 과잉 유동성 후유증 본격화
- 대중 교역의존도 높은 아시아국 및 자원수출국 타격

3. 원고·엔저 압박

- 경상수지 흑자 기초, 신흥국 불안에도 원화가치 안정
- 주요 수출산업의 가격 경쟁력 약화
- 엔저 흐름 타고 일본기업 반격 본격화

연준은 출구전략 고수, 글로벌 유동성 흐름 급변 위험

미 연준의 양적완화 및 정책금리 조정



- 신흥국 금융 불안 불구, 미국은 출구전략 기조 유지
 - 리차드 피셔 달러스 연준 총재, “연준은 세계의 중앙은행이 아니라 미국의 중앙은행일 뿐”
- 올해 안으로 양적완화 종료, 내년 정책금리 인상 개시 후 지속적 인상 전망

- 출구전략 속도 내거나 금리인상 가능성 높아질 때마다 금융시장 불안 재발
 - 글로벌 유동성 위축 우려
 - 투자자금의 대미유입 집중, 달러강세 심화

19/28

<참조> 잠재 위험 국가

14개국 지목... 경상수지 적자, 과도한 외채, 정치 불안 등의 특성

취약 신흥국의 주요 경제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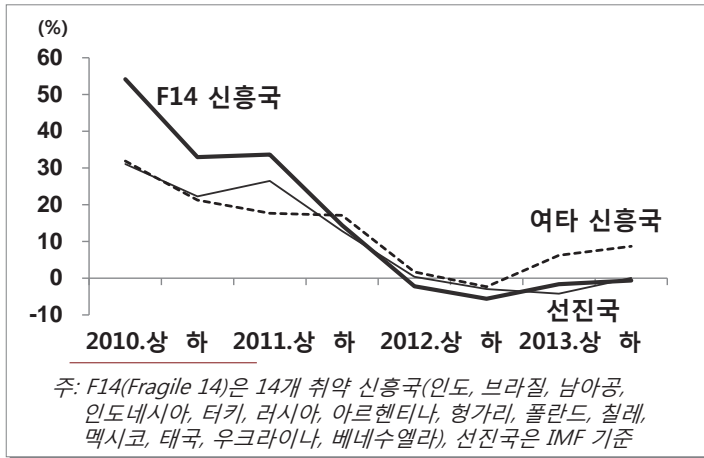
	경상수지/GDP (%)	단기외채/외환보유액 (%)	수출 중 원자재 비중 (%)	'13년 성장률 (과거 5년 평균 대비 변동)	정치소요 여부	위기 지목 주요 기관
남아공	-6.0	41.4	37.9	1.8 (-0.3)	O	F,M,D,B
브라질	-3.4	33.9	59.8	2.3 (-0.8)	O	F,M,D,B
터키	-6.7	88.4	19.3	3.9 (0.6)	O	F,M,D,B
태국	-1.1	12.1	23.3	2.9 (0.0)	O	M,D,B
러시아	2.0	17.6	64.1	1.6 (-0.2)	X	D,B
인도네시아	-3.4	48.9	53.6	5.7 (-0.2)	X	F,M
칠레	-3.8	73.6	49.5	4.2 (0.2)	X	F,M
우크라이나	-8.4	60.1	40.1	-1.1 (-0.3)	O	M,D
아르헨티나	-0.4	27.4	22.3	4.9 (-0.5)	O	B
베네수엘라	7.1	48.3	42.0	1.3 (-0.6)	X	B
폴란드	-2.3	35.6	19.2	1.4 (-1.7)	X	F
헝가리	2.1	71.6	15.4	1.0 (1.7)	X	F
인도	-4.1	53.8	39.1	4.6 (-1.6)	X	F
멕시코	-1.8	34.8	21.6	1.3 (-0.6)	X	M

주: 주요기관 위기 지목 여부에서 F는 financial Times, M은 Morgan Stanley, D는 Danske Bank, B는 Barclays 를 의미

20/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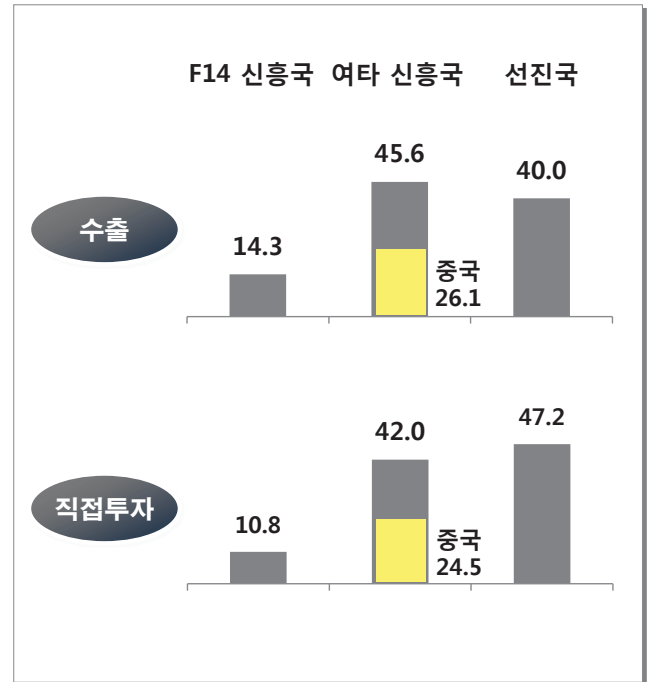
對新淸國 수출여건 악화 불가피

지역별 수출증가율 추이



- 지난해 수출, 중국 및 선진국 중심으로 회복, 반면 취약 신흥국 수출은 감소 추세
- 올해도 신흥국 수출여건 전반적으로 악화
 - 對신흥국 수출비중 60% 정도로 높아진 상태
- 중국경제 향방도 변수... 경기 급락시 동남아, 자원 수출국 등으로 파급, 세계경제 위축으로 비화

지역별 수출 및 투자 비중(%)



21/28

중국 성장둔화 및 금융불안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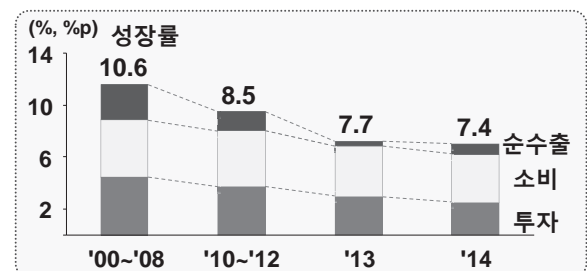
구조조정 본격화로 7%대 중반의 감속 성장

시진핑 정부 주요 경제정책 방향



- ✓ 과잉 부채 및 유동성 해소 등 구조조정 지속
 - 지방재정 건전화, 부동산투기 및 그림자금융 규제
- ✓ 소득분배 개선으로 내수성장 기반 확대
 - 최저임금 상향, 소기업 감세, 사회보험 확대
- ✓ 부정부패 척결 등 개혁 견지
 - 3공경비 축소, 음성소득 엄단
- ✓ 인위적 경기부양책 가급적 배제

2014년 주요 경제 흐름



기업투자 둔화

- 철강, 발전설비 분야 과잉설비 누적, 가동률 하락으로 투자 둔화

SOC 투자조정

-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부채 및 지출 규제, 선별 투자 유도

부동산 둔화

- 규제강화로 주택가격 상승세 약화, 부동산 투자활력 둔화

소비 지속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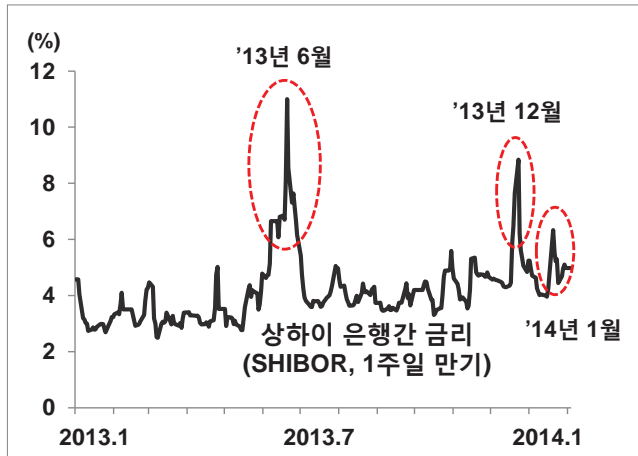
- 민생증시 정책으로 소득개선
- 자동차, IT 제품 소비는 꾸준히 증가

- 지난해 11월 3중 전회에서 전면개혁 강조... 장기 안정 성장기반 위해 성장속도 조절 필요성 역설

22/28

그림자 금융 發 신용경색이 투자위축으로 이어지며 실물경기 급락 초래할 위험성

단기금리 급등 빈발



- 작년 6월 및 12월에 이어 올해 초에도 단기금리 급등, 중국내 자금경색 조짐 빈번해져
 - 미 연준 양적완화 축소 영향... 홍콩에서 일부 외자 이탈로 자금시장 공백
 - 정부당국의 규제 강화, 자금시장 숨통 틔우기 위한 시장개입에 소극적

그림자 금융 리스크

그림자 금융 규제는 체질 개선 위한 고육책

- 가장 취약한 부실 고리인 (1) 부동산 과열 (2) 지방정부 부실 (3) 한계기업 과잉 관련 이슈 확대
- 2008년 이후에도 중국의 그림자 금융은 급증세: 최근 3년간 2배 증가(23조 위안, GDP의 약 40%)
- “성장 둔화되더라도 규제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 - 장 핑(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부소장)

경기둔화 불가피... 은행위기 가능성 높지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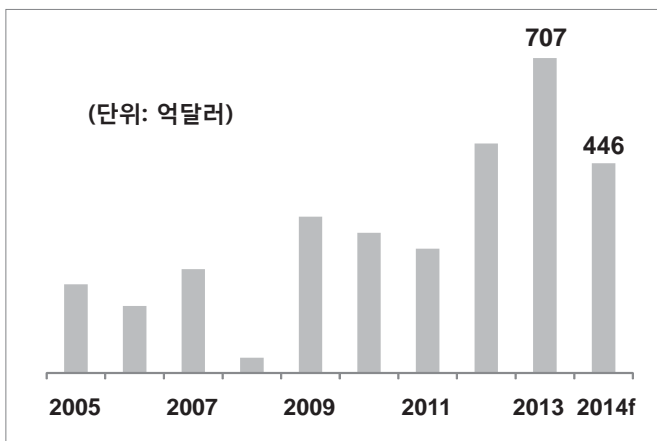
- 투자의 성장 기여도 높아, 그림자 금융 위축되고 중국내 자금경색 심화될 경우 중국의 고정자산투자 큰 폭으로 위축
- 원자재 수요 위축 및 가격 하락... 대중 무역 의존도 및 자원 수출국으로 악영향 전이

23/28

원고·엔저 압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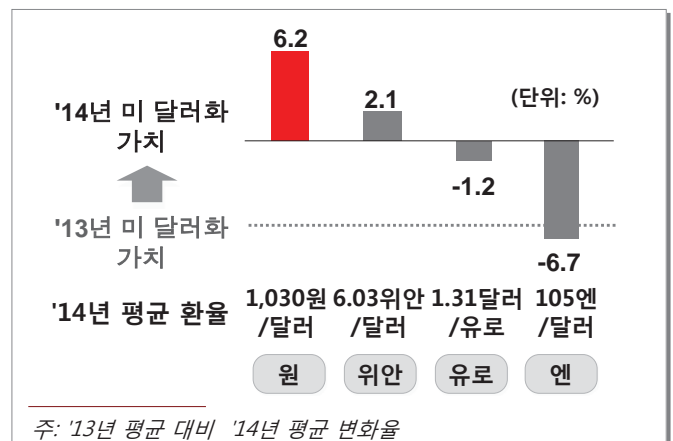
달러 강세, 신흥국 통화 약세 속에서도 원화 가장 큰 폭 강세 예상

경상수지 흑자 기초



- 지난해 경상수지 사상 최대 규모(707억달러) 흑자에 이어 올해도 450억달러 전후 흑자 예상
-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으로 원화절상에도 수입이 크게 늘어나기 어려운 구조(원자재 수입비중 63%)
- 신흥국 금융 불안 확대돼도 우리 금융시장은 여타 취약국과 차별화

주요 통화들의 달러화 대비 가치 변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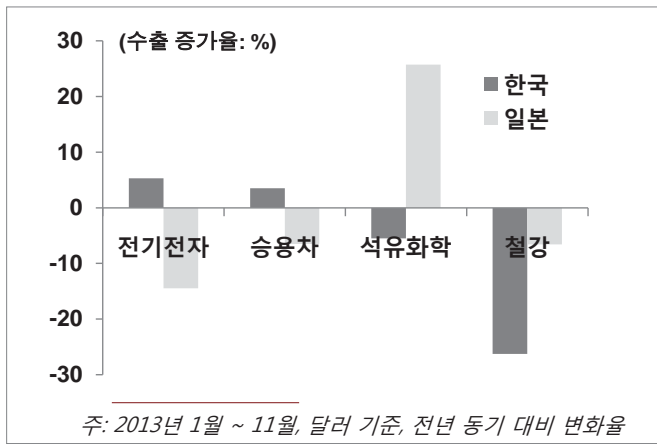


- 원화는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로 절상압력 커질 것... 금융불안 조기 안정시 원화 저평가 해소 압박 커지면서 급격한 절상 리스크
- 달러화 강세 속에 엔화는 일본경제 회복흐름 둔화 및 추가 완화책 나오면서 평균 달러당 105엔 수준의 약세 지속 전망

24/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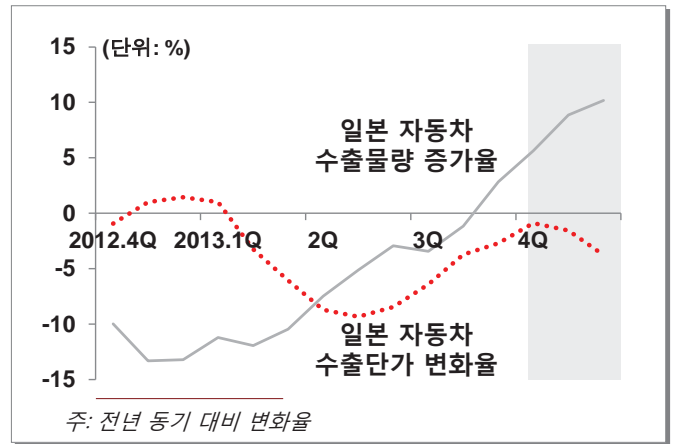
세 자리 원/엔 환율 압박, 일본기업 반격 더욱 본격화될 전망

수출영향, 전자산업에 상대적으로 미약



- 그 동안 엔저의 일본 수출 영향 뚜렷하지 않아... 일본의 경쟁력 약화, 해외생산 비중 확대, 단기적으로 수익성 회복에 주력
- 철강, 정유 등 소재산업은 원고·엔저 효과 뚜렷... 향후 자동차, 기계 → 전기·전자 순으로 우리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 가시화 전망

단가인하 효과 서서히 가시화



- 엔저 장기화 시각 증가하면서 일본기업의 단가인하 전략 강화될 전망
- 수익성 개선, 국내수요 기반에 힘입어 그간 시장지위 약화됐던 스마트폰(SONY), 반도체(Toshiba), 디스플레이 패널(Sharp) 등의 사업 강화 움직임

25/28

맺음말

- 선진국 경제는 작년 상반기를 바닥으로 완만한 회복국면이 예상되나 최근 매출 비중이 크게 늘어난 개도국 경제는 과거보다 성장세가 낮아질 것으로 보임.
- 국내경기도 회복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세계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중국의 성장세는 중장기적으로 하향 조정될 것임. 그렇지만 향후 10년 이상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수요 확대국의 지위를 유지할 것임.
-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효과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은 쉽게 사라지기 어려울 것이며, 금융 및 실물경기 불안이 위기적 상황으로 진전되는 국가도 있을 것임. 환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위기발생 취약국들의 금융 리스크가 사업에 미칠 파장에 각별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임.
- 과거 경기침체기 기업들이 체계적인 미래준비를 하는데 비해 여타기업들은 경기침체 방어라는 단기적 시각으로 대응하는 데 그쳐 회복기 이후 성과격차가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26/28

<참조> 세계경제 주요 지표 전망

(단위: %)

	2012	2013			2014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세계경제(PPP)	3.1	2.9	3.2	3.1	3.4	3.5	3.5
선진국	1.4	1.1	1.8	1.5	2.1	2.2	2.1
미국	2.8	1.5	1.9	1.7	2.6	2.7	2.6
일본	1.4	0.6	2.8	1.7	1.6	1.1	1.4
유로	-0.6	-0.9	0.0	-0.4	0.5	0.8	0.7
개도국	5.0	4.7	4.6	4.7	4.7	4.9	4.8
아시아	6.4	6.2	6.1	6.2	6.0	6.2	6.1
중국	7.7	7.6	7.6	7.6	7.5	7.3	7.4
인도	5.1	4.6	4.5	4.6	4.7	5.1	4.9
중남미	2.9	3.4	3.0	3.2	3.0	3.3	3.1
브라질	0.9	2.6	2.4	2.5	2.5	2.7	2.6
중동·북아프리카	4.6	3.7	3.3	3.5	3.7	3.9	3.8
아프리카(사하라이남)	4.9	4.5	4.9	4.7	5.4	5.0	5.2
러시아	3.4	1.4	1.7	1.6	2.5	2.3	2.4
동구	1.4	2.1	2.4	2.3	2.6	3.0	2.8
엔/달러 환율 (평균)	80	95.5	100	98	103	106	105
달러/유로 환율 (평균)	1.29	1.31	1.34	1.33	1.34	1.28	1.31
국제유가(Dubai, 달러/배럴)	109	104.4	106.0	105.2	101.5	99.5	100.5

27/28

<참조> 국내경제 주요 지표 전망

(단위: %)

	2012	2013			2014		
		상	하	연간	상	하	연간
GDP성장률(%)	2.0	1.9	3.8	2.9	4.0	3.5	3.7
민간소비	1.7	1.6	2.3	2.0	3.0	2.8	2.9
건설투자	-2.2	5.2	8.4	6.9	1.2	1.7	1.5
설비투자	-1.9	-8.2	6.0	-1.4	8.5	3.6	6.0
수출(통관, %)	-1.3	0.6	4.1	2.3	4.9	7.3	6.1
수입(통관, %)	-0.9	-2.9	1.6	-0.7	6.3	10.6	8.5
경상수지(억 달러)	431	298	382	680	226	219	446
소비자물가(%)	2.2	1.3	1.0	1.1	1.6	2.5	2.1
실업률(%)	3.2	3.4	2.9	3.1	3.3	2.8	3.0
취업자수 증가(만명)	44	29	47	38	46	36	41
원/달러 환율(평균)	1,127	1,104	1,085	1,095	1,040	1,020	1,030
원/엔 환율(평균)	1,412	1,156	1,085	1,120	1,010	960	985
원/유로 환율(평균)	1,449	1,448	1,455	1,452	1,395	1,305	1,350
원/위안 환율(평균)	179	178.3	177.6	178	172	170	171
회사채수익률(%)	3.8	3.1	3.4	3.3	3.7	3.9	3.8

28/28

중소기업의 환위험 관리방안과 지원제도

오 주 현 팀장
한국무역보험공사

환위험 관리와 환변동보험

2014. 3.

ksure 한국무역보험공사

목차

I 환위험관리의 이해

II 환변동보험의 이해

III 환변동보험 용어설명

IV 환변동보험 이용절차

V 환변동보험 이용사례



I. 환위험관리의 이해

■ 왜? (헷지의 목적)

● 영속기업(going concern)으로 살아 남기 위해서(綿綿若存)

(중소기업 영업이익율 5%대, 13년 엔/원 변동성(최고-최저) 20%로 미헷지시 수출 손실 우려)

☞ 居安思危, 思則有備, 有備無患 (준주작씨전)

■ 환위험 관리 원칙

● 얼마나? 수출금액 범위 내에서 일정부분 헷지하되 Over Hedge는 금물 (過猶不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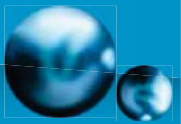
● 언제? 사업계획환율 이상에서 일정부분 헷지, 환율 급등락시 분위기 편승 않도록 분할 헷지

● 무엇으로? 중소기업은 구조가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상품 활용 (선물환 또는 환변동보험)

☞ KIKO 트라우마를 극복하자 (단, 옵션 매도비용 높은 zero-cost 상품 신중히)

● 누가 결정? 중소기업은 경영진도 관심 가져야

1



II. 환변동보험의 이해

1 환변동보험 개요

■ 제도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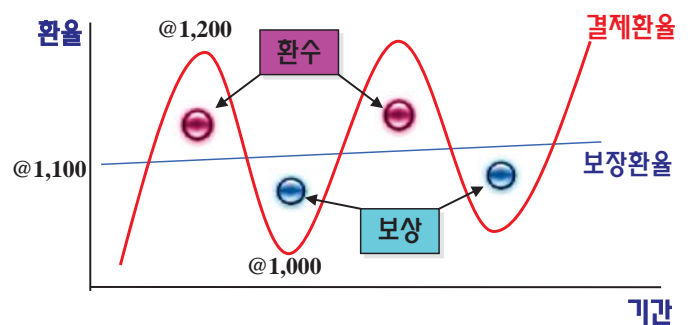
●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환위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00.2월 도입

■ 제도내용

● 무역 외환 흐름을 사전에 원화로 확정하여 안정적인 수익확보 및 환위험 회피 지원

- 환율 하락시에는 환차손 보상하고, 환율 상승시에는 환이익 환수
- 대상통화 : USD, JPY, EUR, 위안화
- 대상기업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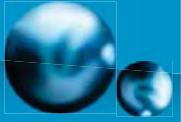
■ 환변동보험의 구조(일반형-수출선물환)



● 결제환율 > 보장환율 의 경우, 수출기업의 환차이익을 공사가 환수

● 결제환율 < 보장환율의 경우, 수출기업의 환차손을 공사가 보상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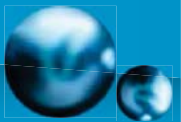
II. 환변동보험의 이해

2

환변동보험의 종류

구 분		내 용
일반형 선물환	수출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율하락 : 공사 →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 환율상승 : 보험계약자 → 공사에 이익금 납부
	원자재 수입거래 (수출원자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율상승 : 공사 →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 환율하락 : 보험계약자 → 공사에 이익금 납부
환수금 없는 옵션형	부분보장 옵션형 (Put Spread Op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율하락 : 통화(100엔)당 80원까지 보험금 지급 환율상승 : 이익금 납부 면제
	완전보장 옵션형 (Put Op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율하락 : 환차손 전액 보험금 지급 환율상승 : 이익금 납부 면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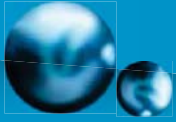
II. 환변동보험의 이해 (일반형-수출)

3-1

환변동보험(일반형)의 구조

환율변동	수출거래(a)	환변동보험 헷지(b)	헷지결과(a+b)
환율하락 (100원 ↓)	<p>손익: 달러당 100원 손실</p> <p>환율하락보장환율 (1,000) (1,100)</p> <p>손실 발생</p>	<p>손익: 달러당 100원 보상</p> <p>손실 보상</p> <p>환율하락보장환율 (1,000) (1,100)</p>	<p>수출거래(a): -100</p> <p>헷지거래(b): +100</p> <p>헷지결과(a+b): 0</p>
환율상승 (100원 ↑)	<p>손익: 달러당 100원 이익</p> <p>보장환율 (1,100)</p> <p>이익 발생</p> <p>환율상승 (1,200)</p>	<p>손익: 달러당 100원 환수</p> <p>환율상승 (1,200)</p> <p>보장환율 (1,100)</p> <p>이익 환수</p>	<p>수출거래(a): +100</p> <p>헷지거래(b): -100</p> <p>헷지결과(a+b): 0</p>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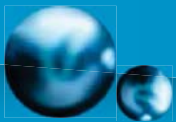


II. 환변동보험의 이해 (일반형-수출)

3-2 환변동보험(일반형)의 장점

구 분	선물환(Forward)	환변동보험	환변동보험의 이점
거래주체	금융기관	무역보험공사	
계약환율	은행 선물환율 (개별기업 신용도 적용)	은행 평균선물환율 (공기업 신용도 적용)	최우량 기업에 제공되는 환율 적용
비용 (1년기준)	선물환율에 마진포함	보험료 (0.04% 내외)	저렴한 비용
증거금	신용도에 따라 요구	없음	별도 담보 필요 없음
최소금액	통상 1만불 이상	제한 없음	소액도 헷지 가능
거래한도	신용도에 따라 제한	수출(입) 실적 기준	상대적으로 많은 한도
손익정산	실물인도 원칙	차액정산 원칙	간편한 정산 방식
거래기간	통상 1년 이내	최장 5년(수출거래)	장기거래 헷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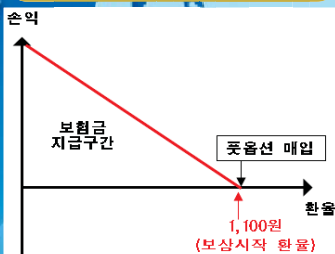
5



II. 환변동보험의 이해 (옵선행)

4 환변동보험(옵선행)의 구조

완전보장 옵선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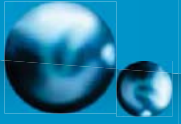


부분보장 옵선행



구 분		내 용
대상기업		중소중견 수출기업 (aT, 수산무역협회, 무역, 전기협회등 보험료 지원)
대상통화		미달러화, 엔화, 유로화
보장환율		청약일자 시장평균환율(a) (또는 'a-10'원)
결제환율		결제월 최종영업일 최초고시환율
손익 구조	환율상승시	환수금 없음
	환율하락시	- (부분) 통화(100엔)당 최대 80원 보상 - (완전) 환차손 전액 보상
최대보험기간		6개월
최소청약금액		1만달러, 1만유로, 백만엔
결제시점		월말결제만 가능, 조기결제 불가

6



Ⅲ. 환변동보험 용어설명

1 보장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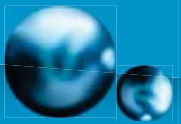
- 공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청약시점에 미리 고정(보장)시켜주는 환율
 - 청약일의 시장평균환율에 헷지기간별로 스왑포인트를 더하여 결제월별로 제공
(청약일 다음날에 보험증권에 기재)
 - ▶ **보장환율(선물환형) = 청약일 시장평균환율 + 기간별 Swap Point**

◆ 매일 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 「보장/조기결제환율 조회」에 고시

* 보장환율 예시('13.10.25자 청약시, 매도거래 청약일 평균환율 = 1,062.3)

만기	'13.10	'13.11	'13.12	'14.4	'14.10	'15.10	'16.10	'17.10	...
스왑포인트	0.1	1.3	3.1	8.6	14.6	19.6	22.0	21.7	...
보장환율	1,062.4	1,063.6	1,065.4	1,070.8	1,076.8	1,081.9	1,084.2	1,084.0	...

7



Ⅲ. 환변동보험 용어설명

2 청약금액 (보험금액)

- 보험계약자가 공사에 부보한 외화금액으로 향후 손익 정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 청약가능금액 : Min [(인수한도 - 유효계약액), (인수한도×130% - 청약누계액)]

3 보험요율 및 옵션프리미엄

- (선물환 일반형 보험요율) = 수출자신용도, 결제기간등 감안 (평균 0.04% 내외)
 - ▶ 2014년말까지 일반형 보험료 20% 특별할인
- (옵션형 보험요율) = 기본요율(0.005%) + 추가요율(통상 1% 이상, 매일 공사 홈페이지 게재)
- (보험료 지원사업) = 무역협회, 유관기관 및 지자체 환변동보험료 지원사업

주요 지원기관	지원대상	보험종목	지원한도
농유공(aT)	농식품 수출기업	일반형, 옵션형	1천만원
수산물무역협회	수산물 수출기업	옵션형	1천만원
한국무역협회	엔저피해기업	일반형, 옵션형	150만원
전기산업진흥회	회원사	일반형, 옵션형	500만원



Ⅲ. 환변동보험 용어설명

4 결제일, 결제신청일, 손익산정일

- (결제일)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액과 이익금을 산정하는 기준일자
 - 조기결제를 통해 별도로 결제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손익산정일은 자동적으로 청약시 지정한 결제(예정)일자가 됨
- (결제신청일) 보험내용에 따른 손익을 정산하기 위해 보험계약자가 결제의사를 통지한 날
 - 만기결제시 자동적으로 결제신청이 됨
- (손익산정일) 결제환율 적용일로 결제신청일 다음 영업일이 됨

5 조기결제(일반형 기준)

- 보험계약자가 만기이전에 조기정산을 원할 경우, 최초만기 **2영업일 전까지 자유롭게 조기결제 신청이 가능(오전 중 신청 가능)**

9



Ⅲ. 환변동보험 용어설명

6 결제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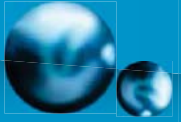
- 보장환율과 비교하여 손익을 정산하는 기준이 되는 환율로 결제일에 고시

【 환율적용비교 】

구 분		개 정 후
보장환율		청약일 시장평균환율 + 해당결제일자가 속한 결제월말기준 Swap point
결 제 환 율	① 결제일 월말지정	결제일자(월말 최종영업일)의 최초고시 매매기준율
	② 결제일 월중지정	결제일 전영업일의 시장평균환율 + 월말 최종영업일까지 반대거래 Swap point
	③ 조기결제 신청시*	조기결제신청일의 시장평균환율 + 만기일까지 반대거래 Swap point

*조기결제신청일과 기존 결제(예정)일자간 1개월 이상일 경우, 정산금에 잔여기간 현가할인을 적용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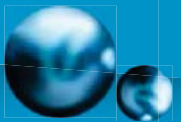


Ⅲ. 환변동보험 용어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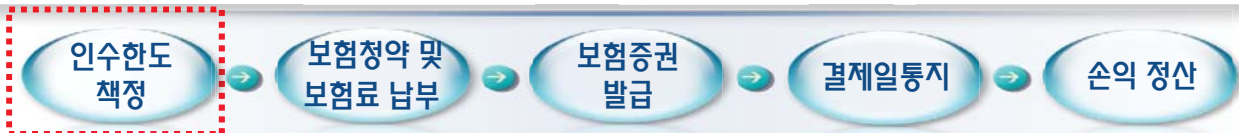
7 보험금 및 이익금

- (보험금) 보장환율보다 결제환율이 하락할 경우 공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 보험금 지급액 = (보장환율 - 결제환율) x 외화 청약금액
- (이익금) 보장환율보다 결제환율이 상승할 경우 보험계약자가 공사에 납부해야하는 금액
 - ▶ 이익금 납부액 = (결제환율 - 보장환율) x 외화 청약금액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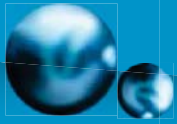
Ⅳ. 환변동보험 이용절차



1 인수한도 책정

- 개념
 - 환변동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 유효기한은 1년
 - 한도 책정후 사이버상 청약 절차를 통해 보험관계 성립
- 한도책정 기준 (수출선물환 기준)
 - 최근 1년간(또는 전년도) 수출실적의 **50~90%** 범위내에서 신용등급과 실행지 수요 감안하여 결정 (**단, 수출실적 5백만불 이하는 실적의 100% 범위내 실수요 감안 책정**)
 - * 실행지수요금액 = 수출실적 - 수입실적 - 타기관 헷지잔액
- 옵션형 인수한도 책정 특례
 - 옵션형은 약정체결 생략, 제출서류 간소화하여 최대 100만달러까지 자동한도 부여
 - * 농수산물기업 100만달러 (기타기업 50만달러)

12



IV. 환변동보험 이용절차 (일반형-선물환)

인수한도
책정

보험청약 및
보험료 납부

보험증권
발급

결제일통지

손익 정산

2 보험청약 및 보험료 납부

■ 보험청약 : 연간한도의 1.3배 범위내에서 한도의 회전활용 가능

- 청약금액 및 결제(예정)일자를 정하여, 오전 중으로 사이버수출보험에 청약 입력
- 고객보호를 위해 상품설명 및 추가위험고지 내용 확인후 청약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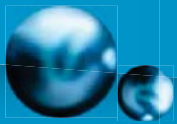
■ 청약제한

- 인수한도 범위내에서 청약가능, 유효계약액을 제외한 잔여한도 범위내에서 청약
- 동일년도의 매분기당 결제예정금액은 인수한도의 60% 이내로 제한

■ 보험료 납부

- 신용등급, 보험금액, 결제기간에 따라 달리 산정되며, 청약과 동시에 보험료 납부

13



IV. 환변동보험 이용절차

인수한도
책정

보험청약 및
보험료 납부

보험증권
발급

결제일통지

손익 정산

3 보험증권 발급

■ 보험증권 발급

- 청약일 다음 영업일에 결제월별 보장환율, 청약금액 등 보험계약 정보가 담긴 증권 발급
- 사이버수출보험 환변동보험 청약조회 화면에서 증권 조회 및 발급 가능

보험증권상의 보장환율

- USD의 시장평균환율은 청약일 외환시장 종료 후 오후 4시경 확인가능
EUR, JPY의 경우, 외환은행고시 매매기준율을 평균하여 다음날 산정하여 고시

14

IV. 환변동보험 이용절차

인수한도
책정

보험청약 및
보험료 납부

보험증권
발급

결제일통지

손익 정산

4 결제일 통지

■ 만기결제

- 청약시 지정한 특정일자를 결제일로 확정하는 단계로, 별도의 조기결제 신청이 없으면 청약시 지정한 결제(예정)일자에 자동으로 정산처리
- 실제 대금결제, 환전일 등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가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도록 운영

■ 조기결제(일반형) :

- 청약시 정한 결제(예정)일자의 2영업일 전까지 자유롭게 조기결제 신청이 가능
- 청약과 마찬가지로, 오전중 결제신청을 완료해야 함

15

IV. 환변동보험 이용절차

인수한도
책정

보험청약 및
보험료 납부

보험증권
발급

결제일통지

손익 정산

5 손익정산

■ 보험금 지급

ksure

결제(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내 보험금을 지급**

▶ 보험금 = (보장환율 - 결제환율) x 외화 청약금액



■ 이익금(일반형) 납부



납부통지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이익금 납부**

▶ 이익금 = (결제환율 - 보장환율) x 외화 청약금액

ksure

☞ 절차 간소화를 위해 실제 수출거래 확인절차는 생략하고 있으며, 실제 입금내용과 차이가 있더라도, 보험계약은 금융계약으로 기존 보험계약 내용대로 손익 정산

16



V. 환변동보험 이용사례

< 성공사례 - A사 >

- 2013년 동사 사업계획 환율(1,050원)
- 1,090원 후반('13.3월), 1,140~1,150원대('13.6월)에 분할 헷지하여 '13년 중 10억원 보험금 수령
- 경영진과 실무진 헷지원칙 공유(사업계획환율 이상에서 분할 헷지)

< 실패사례 - B사 >

- 실거래(3개월 내외)와 달리 보험기간 1~2년 장기 헷지
- '07년말 900원대초반 환율에 인수한도 전액 몰빵 헷지
- 거액 환수금(16억원) 발생 후 환헷지 중단

17

2

Contract Date : _____

Signed: _____

Guaranteed by: _____

환위험관리팀 오주현 팀장
Tel : 02-399-7062
Email: happyoh@ksure.or.kr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별첨1. 외국환거래 규정

제 2 절 국내기업 등 해외지사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개정>

제 1 관 통 칙

제9-16조(적용범위) 거주자가 외국에 당해 거주자의 지점 또는 사무소(이하 “해외지사”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3조제1항제19호마목 및 영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 및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2.4 개정>

제9-17조(해외지사의 구분) 해외지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여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자 설치하는 “해외지점”
2.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의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거나 비영리단체(종교단체를 포함한다)가 국외에서 당해 단체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해외사무소”

② <기획재정부고시 2008-11호, 2008.7.25 삭제>

제 2 관 비금융기관의 해외지사

제9-18조(설치신고 등) ①제1호 및 제2호의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비금융기관이 해외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2008-11호, 2008.7.25 개정>

1. 해외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 가. 과거 1년간의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1백만불 이상인 자
 - 나. 기타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외화획득의 전망 등을 고려하여 해외지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 해외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 가. 공공기관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2.4 개정>
 - 나. 금융감독원
 - 다. 과거 1년간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30만불 이상인 자

- 라. 과거 1년간 유치한 관광객수가 8천명 이상인 국제여행 알선업자
- 마. 다목에 규정하는 외화획득실적에 미달하는 자로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하나의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 바. 외화획득업자나 수출품 또는 군납품 생산업자로 구성된 협회 또는 조합 등의 법인
- 사. 중소기업협동조합
- 아. 국내의 신문사 · 통신사 및 방송국
- 자. 기술개발촉진법령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국외에 기업부설 연구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2.4 개정>
- 차.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설립 후 1년을 경과한 자
- 카. 기타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해외사무소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자(비영리단체를 포함한다)

②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2.4 삭제>

제9-19조(해외지점의 영업기금) ①해외지점을 설치한 자가 해외지점 설치신고시 신고한 금액범위내에서 당해 해외지점에 영업기금(당해 해외지점의 설치비 · 유지운영비 및 영업활동을 위한 운전자금을 포함하고 현지금융차입에 의한 자금을 제외하며, 이하 같다)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해외지점 설치신고시 신고한 영업기금을 초과하여 영업기금을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해외지점은 독립채산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영업기금(제9-20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 제외)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건에 한하여 독립채산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매분기마다 해외지점으로서의 지급내역등에 대해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4.16 개정>

1. 외항운송업자 및 원양어업자
2.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자

제9-20조(해외사무소의 경비) ①해외사무소의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해외사무소의 확장에 따른 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

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 지급을 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에 의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외사무소의 설치계획서에 의하여 사전개산 지급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치신고일부 터 1년 이내에 당해 지급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④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설치비의 정산 결과 미사용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유지활동비로 전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용금액은 당해 사무소의 유지활동비 지급총액에 합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21조(국내항공 또는 선박회사 해외지점의 운영경비) ①외국항로에 취항하는 국내항공 또는 선박회사는 제4-5조 및 제9-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항공 또는 선박회사의 해외지점의 주재원급여 ·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를 그 항공 또는 선박회사의 전 해외지점의 당해 연도 수입금의 100분의 30 범위내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개정>

②국내항공 또는 선박회사는 매 연도별로 각 해외지점의 현지수입금 및 제1항에서 규정하는 현지수입금 사용명세서를 당해 연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고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9-22조(해외지점의 영업활동) ①해외지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

1. 부동산에 관한 거래 또는 행위. 다만, 당해 해외지점의 영업기금과 이익금 유보액 범위내(독립채산제의 예외적용을 받는 해외지점의 경우에는 인정된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 범위내)에서 사무실 및 주재원의 주거용 부동산 등 해외에서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의 취득 등과 관련하여 행하는 부동산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증권에 관한 거래 또는 행위. 다만, 당해 해외지점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당해 주재국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와 당해 주재국내의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증권으로서 즉시 환금이 가능하며 시장성이 있는 증권에 대한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거주자에 대한 상환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대부. 다만,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한국은행총재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하여 신고수리함에 있어서는 제9장제4절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개정>

제9-23조(해외지점의 결산 순이익금의 처분 등) ①독립채산을 하는 해외지점을 설치한 자는 당해 거주자의 매 회계기간별로 각 해외지점의 결산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와 결산결과 발생한 순이익금의 처분내역을 그 결산일부터 6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산이익금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전기이월 결손에의 충당
2. 국내에 회수한 후 외국환은행에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매각하거나 거주자계정에의 예치
3. 당해 해외지점의 영업기금으로의 운용

제9-24조(해외지사의 폐쇄 등) ①해외지사의 명칭 또는 위치를 변경한 자는 변경 후 3개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그 변경내용을 사후보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4.16 개정>

②해외지사를 폐쇄할 때는 잔여재산을 국내로 즉시 회수하고 당해 해외지사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재산처분명세서, 외국환매각증명서류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에서 이 규정에 의해 인정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25조(해외지사에 관한 사후관리 등) ①해외지사의 설치에 관한 신고를 한 자는 설치신고를 한 날부터 6월 이내에 현지법규에 의한 등록증 등 지사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설치신고를 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설치행위의 완료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9-19조, 제9-20조 및 제9-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지사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 또는 처분일부터 6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그 취득 또는 처분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해외지사를 설치한 자는 당해 해외지사의 연도별 영업활동 상황(외화자금의 차입 및 대여명세표를 포함한다)을 해당 연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지사를 설치한 자가 휴·폐업 등으로 인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신고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휴·폐업의 기간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18호 2009.9.30 단서신설>

④영업기금, 설치비, 유지활동비의 지급은 해외지사의 설치신고를 한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동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은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결산, 자금의 차입 및 대여 등에 대하여 해외지사별로 종합관

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⑤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한국은행총재 신고내용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 또는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기일내에 한국수출입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총재,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지사를 설치한 자가 휴·폐업의 상태에 있어 신고기관의 장이 해외지사를 설치한 자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신고기관의 장은 휴·폐업의 사실을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4.16 개정>

1. 해외지사 설치(변경·폐지)신고(수리)서 사본, 해외지사 설치·현황보고서(분기보) : 매 분기 익익월 10일 이내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2.4 개정>
2. 연간영업활동보고서(해외사무소와 비독립채산제 해외지점은 제외한다) :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이내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개정>
3. 사후관리종합내역 등 기타 통계 또는 사후관리에 필요한 서류(해외지사별 영업기금·유지활동비 지급 현황 및 부동산 취득·처분 현황 포함)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개정>

⑥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신고(수리), 송금, 사후관리(회수, 청산, 폐지 등), 사업실적 내역을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통계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 제5항 본문에 의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입력기일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18호 2009.9.30 개정>

전경련 중소기업 경영자문봉사단 「해외진출지원단」 자문위원

□ 자문위원 : 43인

(성명 가나다 順)

연번	성명	해외시장 경력	자문분야	전문국가
1	기외호	삼성물산 / 동경지사 지사장 삼성물산 / 해외사업부장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기계/귀금속/비철금속	<아시아> 일본
2	기현서	코트라 상임이사 외교통상부 주칠레한국대사, 본부대사 동원F&B(주) 사외이사 (주)중남미협회 이사 한-베네수엘라 경제협력센터 소장(재직)	신규사업, 사업계획, 마케팅전략, 시장개척/판로개척, e비즈니스	<중남미> 전지역 <유럽> 독일
3	김동욱	코오롱 뉴욕 사무소장 코오롱 영국제조 법인장 코오롱 태국제조 법인장	해외시장개척 및 마케팅 현지 제조업경영	<북미> 미국 <유럽> 영국 <아시아> 태국
4	김만식	LG전자 시카고 지사장/법인장(미국) LG전자 멀티미디어 해외사업총괄 LG전자 정보통신사업총괄(중국) LG전자 Twin Towers CEO(중국) KISWEL LTD. CEO(말레이시아)	해외마케팅 전략 시장개척/판로개척 사업계획	<유럽> 영국 <북미> 미국 <아시아> 중국, 말레이시아
5	김성덕	국제상사 / 휴스턴 지점장 연합철강 / 뉴욕 지점장 코린도 / 인도네시아 상무이사	1차 금속 제조업	<북미> 미국 <아시아> 인도네시아
6	김영운	삼성전자 / 시카고 지점장 삼성전자 / 파나마 지점장 삼성전자 / 뉴욕 판매법인장 삼성전자 / 중남미 총괄 상파울로 법인장 삼성전자 / 중국 총괄	전기장비 제조업	<중남미> 파나마, 브라질, <북미> 미국(시카고, 뉴욕) <아시아> 중국(북경)
7	김영환	현대건설 / 이사, 중동 및 동남아 건설프로젝트 삼성물산 / 전무, 동남아지역 건설프로젝트 총괄 벽산엔지니어링 / 부사장, 해외 건설프로젝트 사업관리 경남기업 / 부사장, 해외건설사업 총괄	종합건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아시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스리랑카 <유럽> 볼리비아 <중동> 이라크,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중남미> 볼리비아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알제리, 마다가스카르
8	김용주	삼성물산 / 시드니지사장 삼성물산 / 방콕지사장 삼성물산 / 건설 해외사업본부장	도매 및 상품중개업	<아시아> 태국 <오세아니아> 호주
9	김익수	중소기업은행 컨설팅센터 / 자문역	건설	<아시아> 베트남
10	김정수	두산중공업(중국주재원) 지점장, 동아시아지역장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아시아> 중국, 대만, 베트남

연번	성명	해외시장 경력	전문분야	전문국가
			기계/귀금속/비철금속	
11	김정환	삼성전자 / 통신제품 미국현지법인장	통신제품 / Consumer Electronics Products	<북미> 미국
12	김준경	삼성전자/ 뉴델리 지사장 삼성전자/ 싱가포르 지사장 삼성전자/ 중서부아프리카 지역장 삼성전자 / 이란 지사장 TPV Technology(대만) / 부사장,고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아시아> 동남아시아 전역, 인도, 파키스탄 <아프리카> 중동 아프리카 전역
13	김진홍	현대양행 /사우디아라비아 주재 한국중공업 / 카이로 지점장 한라중공업 / 플랜트 해외영업 본부장 한라-스펙코 중공업 / 대표이사	플랜트 엔지니어링, 플랜트 건설	<아시아> 미얀마, 말레이시아 <아프리카> 이집트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14	남기재	강원이동통신 사장, 기아정보시스템 대표이사 부사장, TDS, 태흥아이에스 사장, 부회장	전자기기 수출 및 원자재 수입 등	<아시아> 태국, 중국, 필리핀 <아프리카> 이집트 <중남미> 베네수엘라
15	문수동	LG-칼텍스 가스 / 부사장, 중동 담당 (주)E1 / 부사장, 인도네시아 가스개발 담당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에너지 관련 설비 건설 제작 수출입	<아시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아부다비, 카타르, 이란
16	박명남	한신공영(주) / 대표이사	종합건설업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17	박성백	LG전자 DS Division 책임 LG Hitachi, Data Storage 상무	신사업 전략 및 마케팅, 신제품개발, 해외규격 인증 등	<북미> 미국 <유럽> 독일 <아시아> 일본
18	배중균	효성 ASC(선루프 등 자동차 부품 제조 수출업체) / 관리이사 태일정밀(주) / 해외영업 본부장	전자부품 제조업/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화·공급·제어 장치 제조업	<아시아> 베트남
19	서형원	삼성전자 중국 통신생산판매법인장 삼성전자 일본 통신법인 법인장	해외마케팅 전략	<아시아> 중국, 일본
20	신병호	(주)한화 / 런던 지사장 (주)한화 / 홍콩 지사장 (주)한화 / 뉴델리 지사장	도매 및 상품중개업	<유럽> 영국 <아시아> 중국, 홍콩, 인도
21	심만섭	(주)현대종합목재 / 미국현지법인대표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북미> 미국 <아시아>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22	양태진	골든벨상사(주) / LA 지사, 수출입담당 (주)한화 / 동경법인 이사, 수출입 총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북미> 미국(LA) <아시아> 일본(도쿄)
23	오상규	현대자동차(주) 글로벌영업본부 본부장 현대자동차(주) 아시아중동팀장, 지역본부장	자동차 부품 수출	아시아 지역 중동 지역 아프리카 지역
24	오장환	삼성전자 / 이탈리아 해외본부 판매 법인장 삼성전자 / 인도네시아 해외본부 판매 법인장 삼성전자 / 남아프리카공화국 해외본부 판매 법 인장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유럽> 이탈리아 <아시아>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남아공

연번	성명	해외시장 경력	자문분야	전문국가
		삼성전자 / 디지털미디어총괄 전략마케팅팀장 (해외) 금호타이어 / 해외 영업 총괄부사장		[금호타이어] <북미> 미국 <유럽> 유럽전역
25	윤엽선	삼성물산 해외지점장	해외마케팅, 지점설립 및 관리	<북미> 미국 <중남미> 페루, 파나마 <아시아> 파키스탄
26	윤장진	현대전자 시스템 / 부사장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중남미> 멕시코, 브라질 <아시아>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27	이봉구	동아 종합상사(주) / 영국 지사장 경남기업(주) / 카메룬 관리과장 현대종합상사 / 아르헨티나 지사장 현대종합상사 / 칠레지사장 현대종합상사 / 방글라데시 지사장 현대종합상사 / 파리 지사장 현대자동차 / 호주 법인장 현대자동차 / 아시아 태평양 지역본부장(싱가포르) 현대자동차 / 인도법인 영업마케팅본부장 기아차 / 미국법인사장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 조업 / 자동차 및 부품 판 매업	<유럽> 영국 <북미> 미국 <중남미>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아시아> 인도,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아프리카> 카메룬 <오세아니아> 호주
28	이원우	태양강업 대표이사 동양철판 대표이사 EUPEC france 대표이사	마케팅전략, 시장개척/판로개척 등	<유럽> 프랑스 <중남미> 인도네시아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오세아니아> 호주
29	이지영	현대중공업(주) / 전기전자 시스템 사업본부 상 무	전기장비 제조업 / 전자부품 제조업	<아시아> 대만 <북미> 미국
30	이현근	TCL(중국) / 부사장 Videocon(인도) / 부사장 LG전자 / 중국 법인장 LG전자 / 싱가포르 지사장 LG전자 / 태국 지사장 LG 전자 / 소련 팀장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유럽> 러시아 <아시아> 인도, 중국, 태국, 홍콩,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31	이황렬	대우중공업 / 산업차량본부 해외영업본부 부장 대우중공업 / 미국공장 사업본부장 두산인프라코어 / 엔진 BG장	기타 기계 및 장비 제 조 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 조 업	<유럽> 벨기에 <북미> 미국 <아시아> 중국
32	이희문	동부산업(동부제강) / 뉴욕 지사장	1차 철강 제조업	<북미> 미국(뉴욕)
33	임원	삼성전자 전략마케팅팀장 상무 삼성전자 멕시코 지점장, 아르헨티나 법인장	현지 지점/법인 진출입 관련 업무, 해외마케팅 전략 등	<중남미 전 지역>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34	장병두	경남기업(주) / 자원개발, 해외건설 담당 경남기업(주)/ 사장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금속 광업 / 비금속 광물 광업 ; 연료용 제외	[자원] <북미> 캐나다 <중남미> 칠레, 페루 <아시아> 몽골 [건설] <아시아> 필리핀, 베트남, 몽골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연번	성명	해외시장 경력	자문분야	전문국가
				알제리
35	장영봉	(주)효성(구, 효성물산 종합상사) / 볼리비아 초대지사장 (주)효성(구, 효성물산) / 칠레 초대지사장 (주)효성(구, 효성물산) / 파나마지사장 (주)효성(구, 효성물산) / 캐나다 초대지사장 (주)효성(구, 효성물산) / 멕시코 초대지사장 (주)효성(구, 효성물산) / 파나마 중남미총괄임원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종합 소매업	<북미> 캐나다 <중남미> 멕시코, 파나마, 칠레,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유럽> 스페인 <아시아>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대만
36	정진권	LG 종합상사 / 동경지사장 겸 일본법인장 LG 종합상사 / 상무이사, 생활용품사업부장 LG 종합상사 / 상무이사, 식품, 의약품사업부장 LG 종합상사 / 상무이사, 철광, 금속, 석탄사업부장 LG 종합상사 / 상무이사, 신사업 프로젝트팀장 LG 종합상사 / 상무이사, 유럽, CIS 지역본부장 농수산물유통공사 / 상임이사, 수출본부장	산업용 원자재의 수출입 사업 및 개발 : 철광, 금속, 비철, 유연탄 농,수,축, 식품의 수출입 사업 및 유통 해외광산 및 농장의 개발	<아시아> 일본, 중국, 홍콩,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유럽> 벨기에,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동구 - 러시아(CIS국가) <북미> 미국, 캐나다 <남미>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37	조상균	한국수출입은행 / 국제금융 담당임원	제조업	<아시아> 아시아 전역
38	최상용	LG전자 / 동경사무소 부장 LG전자 / 이탈리아생산법인 법인장 LG 필립스 디스플레이 / 본사 구매총괄(홍콩소재)	전자부품 제조업 /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전기제품	<아시아> 일본(동경), 홍콩 <유럽> 이탈리아
39	최재후	삼성물산 / 잡화수출담당 포스코연구소 / 해외프로젝트 팀장 한솔그룹 / 세계화추진 팀장 미국 마이크로 D / 부사장 몽골재경대학 / 부총장	가방, 잡화 / R&D / 종이, 목재, 신문 용지 / Display / 교육	<북미> 미국, 캐나다 <아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핀란드, 중국, 몽골
40	최종두	포스코 / 뉴델리 및 싱가포르지사장	1차 금속 제조업	<아시아> 싱가포르, 인도
41	최진만	(주)위스코(현대차 계열사) / 대표이사	1차 금속 제조업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아시아> 중국
42	한국현	삼성전자 / 대만지점장 삼성전자 / 홍콩법인장(전중국판매) 삼성전자 / 북경마케팅팀장·중국광주법인장 SK모바일 / 대표, 중국핸드폰 생산·판매 총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아시아> 중국, 대만
43	한기룡	대한중석 - 계장 현대건설 - 과장 현대알루미늄 - 부장	1차 비철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유럽> 영국, 스웨덴 <북미> 미국, 캐나다 <오세아니아> 호주 <중동> 이라크, 쿠웨이트

수출상담회(既신청기업 대상)



경영자문단 자문위원

[illegible]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illegible]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